기술 2025-302 2025.12.04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건강관리

일동홀딩스(000230)



작성기관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작 성 자 동윤정 선임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525-77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일동홀딩스(000230)

글로벌 신약 상업화를 목표로 R&D와 기술을 다각화하는 헬스케어 혁신 기업

기업정보(2025.11.27. 기준)

대표자	박대창
설립일자	1941.03.14
상장일자	1975.06.28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지주사
주요제품	의약품 등

시세정보(2025.11.27. 기준)

현재가(원)	13,140
액면가(원)	1,000
시가총액(억 원)	1,516
발행주식수(주)	11,540,400
52주 최고가(원)	16,370
52주 최저가(원)	5,470
외국인지분율(%)	1.43
주요주주(%)	
씨엠제이씨(주)	17.0%

■ R&D 전문화를 통한 글로벌 혁신 파이프라인 상업화 기반 확보

일동홀딩스㈜(이하 '동사')는 일동제약㈜이 연구개발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유노비아㈜를 종속회사로 편입하며 그룹의 R&D 전문화 구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효율을 강화하였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Xocova(S-217622)는 미국 FDA에 예방 적응증으로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PDUFA 예정일(2026년 6월)까지 지정되면서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그룹의 기술력이 선진 규제 기준에 부합함을 보여주며 향후 기술료·매출 기반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게 한다.

■ GLP-1RA·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기술 기반 확대

동사는 기존 기술을 넘어선 차세대 기술 영역으로 확장 중이다. 유노비아㈜를 통해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는 기존 주사제 중심의 시장에서 복용 편의성과 약물 프로파일 차별화를 확보하려는 기술 자산으로, 초기 임상 성과를 통해 경쟁 우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룹이 축적해 온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프로바이오틱스·포스트바이오틱스를 기반으로 신약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기술 확장성과 응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어, 만성질환 중심의 시장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평가된다.

■ 신약 개발 전주기 내재화 및 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

동사는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의 MIDD(Model-Informed Drug Development) 기반 임상약리 설계 역량과 아이리드비엠에스㈜의 First-in-Class 혁신신약 연구 역량을 통해 신약개발 전주기의 기술을 내재화하였다. 또한 ㈜루텍은 UDI·WMS 등 제약 IT 솔루션을 공급하여 그룹의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기술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신약 파이프라인에 편중되지 않은 구조적 안정성과 기술 포트폴리오의 다층화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2	6,755	14.0	-984	-14.6	-1,945	-28.8	-314.3	-21.8	410.1	-8,869	1,046	N/A	19.3
2023	6,384	-5.5	-796	-12.5	-1,188	-18.6	-234.7	-13.7	416.2	-5,163	3,450	N/A	3.1
2024	6,576	3.0	-24	-0.4	556	8.5	72.9	6.4	236.5	5,462	11,857	1.5	0.7

기업경쟁력

R&D 전문화를 통한 혁신 주도	- 종속회사 일동제약㈜이 연구개발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유노비아㈜를 통해 신약 개발 역량 및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R&D 효율 극대화 -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전략 추구
전주기 내재화 및 MIDD 활용	- 임상약리 컨설팅 전문 자회사(㈜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MIDD(모델 기반 약물 개발)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전주기의 효율성과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적 인프라 내재화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Xocova 개발 - 미국 FDA에 노출 후 예방 적응증으로 허가 신청 접수 중
차세대 대사 질환 치료 기술	- 경구용 GLP-1 작용제(비만/당뇨 치료제) 개발을 통해 주사제 중심 시장에서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기술적 차별성 확보



시장경쟁력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 가능성	- 핵심 파이프라인 S-217622의 글로벌 시장 진입 가시화와 경구용 GLP-1 작용제 확보를 통해 시장 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전문의약품 시장을 선점 기반 확보
만성 질환 및 헬스케어 시장 대응	- 고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당뇨, B형 간염 등) 시장과 미용 성형 시장(필러 등) 성장에 대응하는 파이프라인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활용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환경경영 방침과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KGMP,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동사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대기환경 관리, 수자원 관리, 소음관리, 오염물질/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친환경 경영 이행 및 협력회사 및 공급업체에도 환경경영 활동 동참을 요청하였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청년 채용에 적극적으로 힘쓰며, 장애인, 일자리 취약계층, 지역균형인재 등과 같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 인재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보딩제도, 성장 지원제도 운용, 사내 직무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조직건강도 진단, 역량 강화 워크샵 및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음.
G 기업지배구조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외 필요한 사항(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등)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결산 기준 거버넌스 관련 위배사항에 해당되는 항목 없음. ◎ 2007년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래 윤리경영, 투명경영, 신뢰경영의 실천을 선언하고 6년 연속 신뢰경영 대상을 수상하였음.

I. 기업 현황

지주사업 기능 기반의 종속기업 포트폴리오 운영

동사는 2016년 인적·물적 분할 이후 지배구조 중심의 사업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일동제약㈜, ㈜유니기획, ㈜루텍 등 주요 종속기업을 기반으로 헬스케어·광고·IT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비핵심 계열 정리와 지분 구조 재편이 진행되며 전체 조직의 효율성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 회사의 개요

동사는 1941년 3월 설립되어 2016년 8월 일동제약㈜과의 인적 ·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배구조 중심 회사로 전환한 기업이다. 투자, 브랜드 수수료, 경영자문 수수료, 임대 등 지주회사 수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상장사 1개와 비상장사 8개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종속기업들은 의약품 제조 · 판매, 광고대행, 소프트웨어 개발, 미용성형 의료기기 제조 · 판매, 임상약리 컨설팅, 글로벌 신약개발, 의약품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일동제약㈜, ㈜루텍, ㈜유니기획 등이 있다.

동사는 1975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본사는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에 위치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동사 주요 연혁

일자	연혁 내용
1941.03.	극동제약㈜ 설립
1972.03	미국 American Home Products의 계열회사인 Wyeth사와 기술 제휴
1975.06	한국거래소 시장에 유가증권 상장
1976.03	미국 White Hall사와 총판계약 체결
1979.06	이태리 Farmitalia Carloerba사와 기술 제휴
1981.12	일본 Shionogi제약과 총판계약 체결
1992.11	종합광고대행사 ㈜유니기획 설립
1996.07	이유식 및 대용식,음료 등의 제조 판매업체 남양산업㈜ 인수
1997.12	일본 아지노모토사와 제조 판매계약 체결
2002.02	청주공장 BGMP시설 완공
2003.04	일본 OSG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알칼리 이온수기 사업 진출
2007.01	건강관련제품, 생활용품 등을 개발 판매하기 위한 일동생활건강㈜ 설립
2011.11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회사 ㈜루텍 설립
2014.03	의료용 기구 회사 일동에스테틱스㈜ 설립
2016.06	기업 분할 관련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가결
2016.08	기업 분할 후 각 회사 사업 개시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홈페이지,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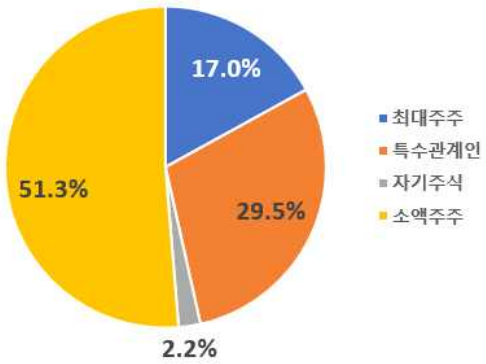
동사의 최대주주는 부회장 윤웅섭이 100% 지분을 보유한 씨엠제이씨㈜로, 동사의 지분 17.0%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주주로는 회장 윤원영이 14.8%, 임경자 외 8인의 특수관계인이 7.6%(윤웅섭 1.1% 포함), 특수관계인인 송파재단이 7.1%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2.2%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표 2. 동사 지분구조 현황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씨엠제이씨㈜	최대주주	1,963,934	17.0%
윤원영	특수관계인(임원)	1,711,748	14.8%
송파재단	특수관계인(재단)	821,797	7.1%
임경자 외 8인	특수관계인	877,447	7.6%
자기주식	자기주식	248,310	2.2%
기타	소액주주	5,917,164	51.3%
합계		11,540,400	100.0%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그림 1. 동사 지분구조 현황



자료: 분기보고서(2025.09.)

동사의 주요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광고대행사 ㈜유니기획, RFID · 2D 바코드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는 ㈜루텍,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일동제약㈜이 있다. 또한 메디칼 솔루션 기업인 새로엠에스㈜(舊 일동이커머스), 비임상 · 임상약리 · 임상개발 · 허가 등 신약개발 전주기 컨설팅을 제공하는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 신약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위탁연구개발 및 자체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수행하는 유노비아㈜가 있다. 이 밖에 미국에서 임상 · 개발 전략 자문을 수행하는 AIMS USA, Inc.와, 일동제약㈜이 지분 53.0%를 보유한 위생용품 제조기업 ㈜비케이메디케어가 종속기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2025년에는 일부 비핵심 계열 정리가 진행되었다. 일동생활건강㈜은 불균등유상증자 및 동사의 잔여지분 매각으로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동사의 보유지분 전량 매각 및 일동제약㈜의 신규 취득으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후다닥㈜은 2025년 4월 청산이 완료되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큐더스패밀리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조합 해산으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표 3. 동사의 주요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상호	설립일	소재지	주요사업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천원)	동사의 지분율	주요종속 회사 여부
㈜유니기획	1992.11.18	대한민국	광고대행	4,856,960	100.0%	미해당
㈜루텍	2011.01.25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6,878,579	53.7%	미해당
일동제약㈜	2016.08.01	대한민국	의약품 제조 및 판매	571,336,825	30.5%	해당
새로엠에스㈜	2016.12.06	대한민국	의약품류 전자상거래업	9,443,248	51.0%	미해당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	2019.08.01	대한민국	신약개발사업전략컨설팅	6,991,406	57.8%	미해당
AIMS USA, Inc	2022.08.04	미국	R&D 컨설팅	128,430	-	미해당
아이리드비엠에스㈜	2020.12.15	대한민국	신약연구개발업	4,318,696	-	미해당
유노비아㈜	2023.11.01	대한민국	신약연구개발업	11,735,091	-	미해당
㈜비케이메디케어	2013.01.08	대한민국	위생용품제조업	11,637,032	-	미해당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 대표이사

동사의 대표이사 박대창은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뒤 1978년 일동제약㈜에 입사하여 생산, 영업, 기획, 전략, 구매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경험하였다. 이후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안성공장장과 생산부문장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오랜 현장 경험과 조직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동사의 경영 전반을 이끌고 있다.

■ 주요 사업 분야

동사의 사업부문은 헬스케어, 광고, 정보통신 및 공익재단 영역으로 구성된다. 헬스케어 부문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일동제약㈜을 중심으로 새로엠에스㈜가 의료기기 및 메디컬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동생활건강㈜ 및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2025년 지분 변동으로 각각 공동기업·관계기업으로 전환되었다. 광고 부문은 ㈜유니기획이 담당하고, 정보통신 부문은 RFID·2D 바코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루텍이 담당하며, 동 법인은 기존 일동히알테크를 합병하면서 미용·성형 의료기기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공익재단으로는 송파재단이 포함된다.

그림 2. 동사의 사업부문



자료: 동사 홈페이지

■ 매출유형별 실적

동사의 매출 구성은 지주사로서 배당금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연결 기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종속기업을 통한 제품 및 상품 매출이 2024년 98.1%를 기록한 가운데 2025년 3분기에도 97.5%로 종속기업에서 생산된 의약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미용용품 제품 및 상품 등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기타는 용역 매출 등이 대표적이며 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용역수수료, 신약개발 사업 전략 컨설팅 수수료가 있다. 기타 매출 비중은 2%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0.1~0.2%를 유지하였다.

표 4. 매출유형별 실적 (단위: 억 원, K-IFRS 별도 기준)

매출유형	2023	2024	2024 3분기	2025 3분기
용역	107	106	80	87
브랜드	30	32	24	23
임대료	39	36	26	28
배당금	6	2	2	2
합계	182	176	132	140

그림 5. 매출유형별 실적 (단위: %, K-IFRS 별도 기준)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 재구성

II. 시장 동향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기반의 안정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전문의약품 확대

전문의약품 시장은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대에 기반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항암제·희귀약 등 고부가가치 분야가 시장 성장을 견인한다. 규제·보험 정책 변화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내 시장도 연평균 3.4% 성장해 2030년까지 고성장이 전망된다.

■ 전문의약품 시장의 정의 및 특징

전문의약품 시장은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는 의약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OTC)과 명확히 구분된다. 전문의약품은 약물 오남용의 가능성, 부작용 관리, 의학적 진단의 필요성이 동반되는 특성이 있어 전문적인 의료 판단을 기반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시장 구조는 약물 자체의 효능과 기술력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전문가 채널을 통한 영업·마케팅·유통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높은 진입 장벽이다. 임상시험, 허가, 안전성 심사 등 진입 과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허가 획득 후에는 일정 기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한다. 둘째, 정부 정책 및 보험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장이다. 약가 정책, 건강보험 등재 여부, 급여 기준 등 제도 변화는 수익성과 시장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술력 기반의 차별화 중요성이 매우 크다. 단순 제네릭보다는 약물 전달 기술 개선을 통한 개량신약 또는 새로운 기전의 혁신신약이 높은 경쟁력과 시장 가치를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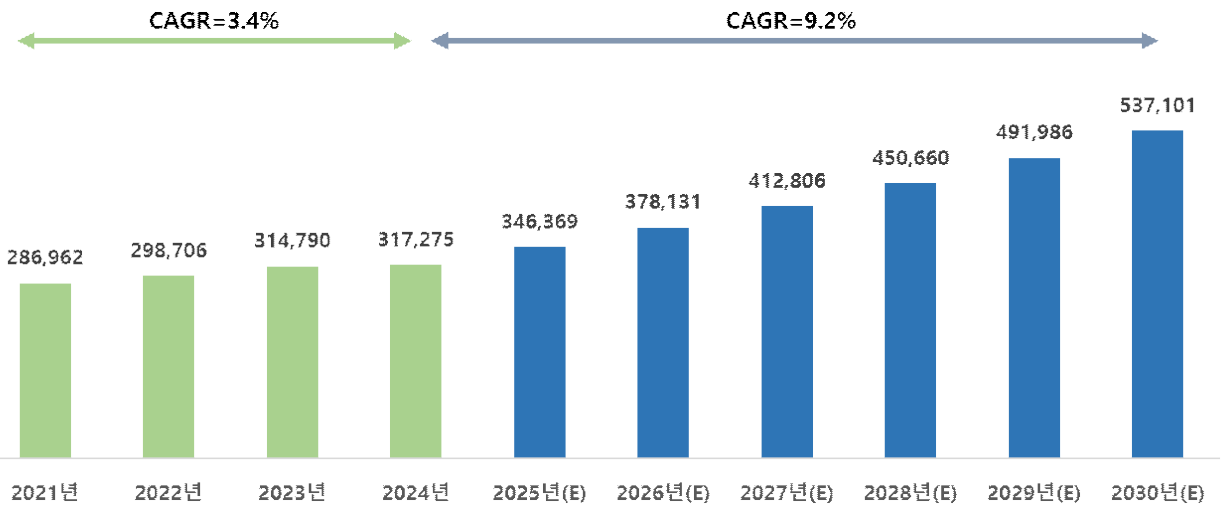
■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와 고부가가치 전문의약품 확대에 따른 중장기 성장 가속화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은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반해 꾸준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혁신 기전 기반의 항암제·면역항암제·희귀의약품 등 특수의약품(Specialty Pharma) 분야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 산업은 기존 제네릭 중심 구조에서 복합제 개발, 약물 재창출(Drug Repurposing), 신규 모달리티(Modality) 적용 등 기술 집약형 영역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과 규제 환경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시장이며, R&D 투자 회수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혁신 신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약가 인하 정책을 병행하여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이전(License-out), 글로벌 공동개발(Co-development) 등 다양한 방식의 R&D 회수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적응증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파이프라인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 규모 측면에서,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21년 28조 6,962억 원에서 2024년 31조 7,275억 원으로 연평균 3.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Fortune Business Insights는 향후 국내 시장의 성장률을 연평균 9.2%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2024년 시장 규모에 적용할 경우 2030년에는 약 53조 7,101억 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수치는 전문의약품 시장이 중장기적으로도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6.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 DB, Fortune Business Insights (South Korea Pharmaceuticals Market Size, Share & Industry Analysis, 2025), 한국기술신용평가㈜ 재구성

■ 글로벌 신약개발·플랫폼기술·바이오시밀러·상업화 역량을 갖춘 국내 대형 제약사들이 주요 경쟁군을 형성

동사의 주요 목표 시장인 전문의약품 분야에서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 국내 상위 제약사가 핵심 경쟁자로 자리한다. 이들은 모두 대규모 R&D 투자와 글로벌 기술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시장 내 경쟁 강도가 높은 편이다.

유한양행은 폐암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의 글로벌 기술이전 성공으로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혁신 신약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라이선스아웃을 통한 R&D 투자 회수 능력이 돋보인다.

한미약품㈜은 'LAPSCOVERY'와 같은 자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장기지속형 바이오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에 강점을 보이며, 여러 차례 대규모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거두어 전문의약품 시장 내 기술 선도 기업으로 평가된다.

종근당㈜은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한 가운데 바이오시밀러와 면역·항암 분야로 R&D를 확장하며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오리지널·제네릭 제품 전반에 걸친 탄탄한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 등 자체 개발 신약의 상업화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질 발굴부터 임상·허가·마케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상업화 역량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III. 기술분석

신약개발 전담화·핵심 파이프라인·스마트 IT까지 아우르는 기술 체계

동사는 일동제약㈜의 연구개발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유노비아㈜를 종속회사로 두며 그룹 차원의 R&D 기능을 전문화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체계화하고 있다. 아울러 임상약리·MIDD 기반의 개발 지원 기술과 제약·바이오 생산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IT 솔루션을 함께 보유하여, 그룹 내부뿐 아니라 외부 산업 전반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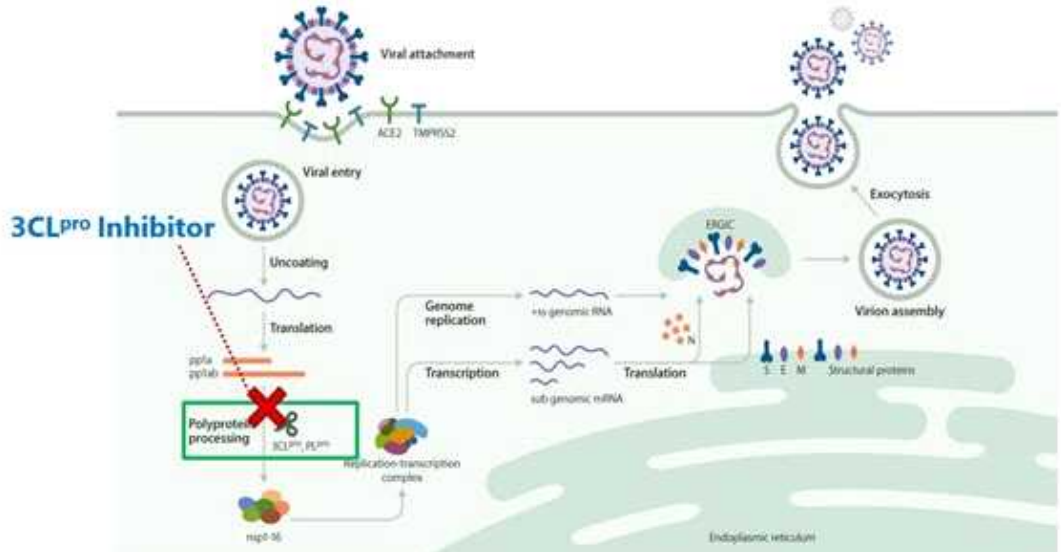
■ 신약개발 역량 집중을 위한 연구개발 전담 자회사 체제 구축

동사의 종속회사인 일동제약㈜은 2023년 11월 연구개발 기능을 전면 물적 분할하여 유노비아㈜를 신약 연구개발(R&D) 전담 자회사로 설립하였다. 이는 일동그룹 전반의 신약개발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고, 후보물질의 기술 가치를 극대화하며, 외부 투자 유치 및 기술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구조 개편이다. 지배구조 중심 회사인 동사는 자체 연구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며 연구개발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의 기술력 평가는 핵심 종속기업인 유노비아㈜와 일동제약㈜의 파이프라인 · 임상개발 능력 분석으로 대체된다. 최근 분기보고서 기준(2025년 9월), 유노비아㈜는 박사급 5명, 석사급 17명 등 총 26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신약개발 전주기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 글로벌 승인·임상 근거를 확보한 3CL 프로테아제 억제 기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Xocova

Xocova(S-217622, 엔시트렐비르 푸마르산)는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개발하고 그룹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3CL 프로테아제 억제 계열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SARS-CoV-2 바이러스 복제 과정의 필수 효소인 3CL 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 해당 물질은 in-vitro 시험에서 SARS-CoV-2 3CL 프로테아제에 대한 억제농도(IC50) 0.0132 μmol/L로 확인되며, 기전적 차별성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 높은 기술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그림 7. 코로나 치료제 Xocova 작용 기전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4.12.)

임상 개발은 2021년 9월 1상 완료 이후 한국·일본·베트남에서 약 2,900명을 대상으로 한 2/3상 임상시험에서 주요 5개 증상 해소 시간(167.9시간)이 위약군(192.2시간) 대비 24시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바이러스 RNA 감소량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2022년 11월 긴급승인을 획득해 약 200만 명분이 사용되었다.

추가로 고위험군 치료효과 연구(SCORPIO-HR)와 노출 후 예방 연구(SCORPIO-PEP)를 수행하는 가운데, SCORPIO-PEP 연구에서는 시험군 감염률 2.9%, 위약군 9.0%로 예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일본에서는 2023년 3월 보험급여 약가(1인 7정 기준 51,851엔)가 확정되었으며, 2024년 3월 정식 허가를 획득하였다. 국내에서는 제조 품목 허가를 이미 신청한 상태로, 예방 효과 등 추가 임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신약 허가 재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글로벌 진출 측면에서도 2025년 3월 시오노기제약이 미국 FDA에 노출 후 예방 적응증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FDA는 같은 해 9월 3일 이를 정식 접수하였다. PDUFA 법에 따른 심사 종료 예정일은 2026년 6월 16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물질의 기술적 완성도와 상업적 잠재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합성의약·혁신신약·마이크로바이옴을 아우르는 후속 파이프라인 다각화 전략

일동그룹은 Xocova 외에도 다양한 질환 영역에서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추진하며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신약 연구개발 전담 손자회사인 유노비아㈜를 중심으로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룹이 보유한 합성의약품 기반 기술을 활용해 개량신약과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를 병행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후속 파이프라인에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베시포비르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개량신약 과제와, 과거 아이디언스에서 개발되던 혁신 항암신약 IDX-1197과 같은 고부가가치 난치성 질환 타깃 후보물질이 포함된다.

표 5. 동사의 주요 신약 개발 현황

종속회사	품목	적응증	연구 시작일	진행단계	비고
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ID32124 (Xocova)	SARS-CoV-2 감염증	2021년	허가 신청 준비	국내 특허출원 2건 국내 특허등록 1건 해외 특허출원 18건 해외 특허등록 10건
유노비아㈜	MASH 치료제 ID119031166 (FXR agonist)	간질환(MASH)	2016년	임상 1상	
	위산 관련 치료제 ID120040002 (P-CAB)	위식도 역류 질환, 소화성 궤양 등	2020년	임상 3상 IND	
	당뇨병 치료제 ID110521156 (GLP-1R agonist)	당뇨	2019년	임상 1상	
	파킨슨질환 치료제 ID119040338 (A2A/A1 antagonist)	파킨슨병	2020년	비임상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 재구성

더불어 그룹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술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 · 포스트바이오틱스 기술을 신약 개발 분야와 연계해 차별화된 기술 자산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바이오의약품 및 신규 모달리티(Modality) 기술을 융합해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6. 동사의 주요 개발 완료 의약품

구분	품목	적응증	개발 완료일	현황	비고
신약	레이보우정	편두통치료제	2022년	발매	
	조코바정	코로나치료제	2022년	품목허가 준비중	
개량신약	라비에트듀오	소화기관용약	2022년	발매	
	메민셉트정	알츠하이머병 치료	2025년	발매	
	아토미브 10/5	고지혈증 치료제	2025년	발매	
제네릭	시타모노정	당뇨병용제	2023년	발매	
	시타콤비정	당뇨병용제	2023년	발매	
	다포르정/다포르메트정	당뇨병용제	2024년	발매	
	리나제틴정, 리나제틴듀오정	당뇨병용제	2024년	발매	
	큐닌타정 150mg	호흡기계용약	2025년	발매	
	써큐록신정 240mg	신경계용약	2025년	발매	
일반의약품	마그라민액티브맥스연질캡슐	비타민제	2022년	발매	
	마그라민트리플액션	비타민제	2022년	발매	
	아로나민아이플러스	비타민제	2023년	발매	
	캐롤나이트연질캡슐	해열진통	2023년	발매	
	엑세라민엔	비타민제	2024년	발매	
	엑세라민에이	비타민제	2024년	발매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 재구성

■ 모델기반약물개발(MIDD) 기반의 임상약리 컨설팅 역량

동사의 자회사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능인 임상약리(Clinical Pharmacology) 컨설팅과 모델기반 약물개발 기술을 제공한다. MIDD는 전임상 ·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의 ADME(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및 약물반응(PD)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구축해 최적 용량 · 용법 · 임상 설계를 도출하는 기술이다. 동사는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 단계 의사결정을 정량적으로 지원하며, 개발 비용 · 시간을 절감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 혁신신약 발굴을 통한 고부가가치 파이프라인 운영

일동그룹의 연구계열사인 아이리드비엠에스㈜는 항암제 등 난치성 질환을 목표로 한 First-in-Class 혁신신약 후보물질의 발굴 · 개발을 수행한다. 과거 항암 후보물질 IDX-1197이 미국 FDA IND 승인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는 그룹의 합성의약 기반 기술력과 초기 신약탐색 역량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그룹의 R&D 전문화 전략에 따라 유노비아㈜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나, 아이리드비엠에스㈜는 중 · 장기적 기술가치 창출을 위한 고위험 · 고수익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담당하고 있다.

일동홀딩스(000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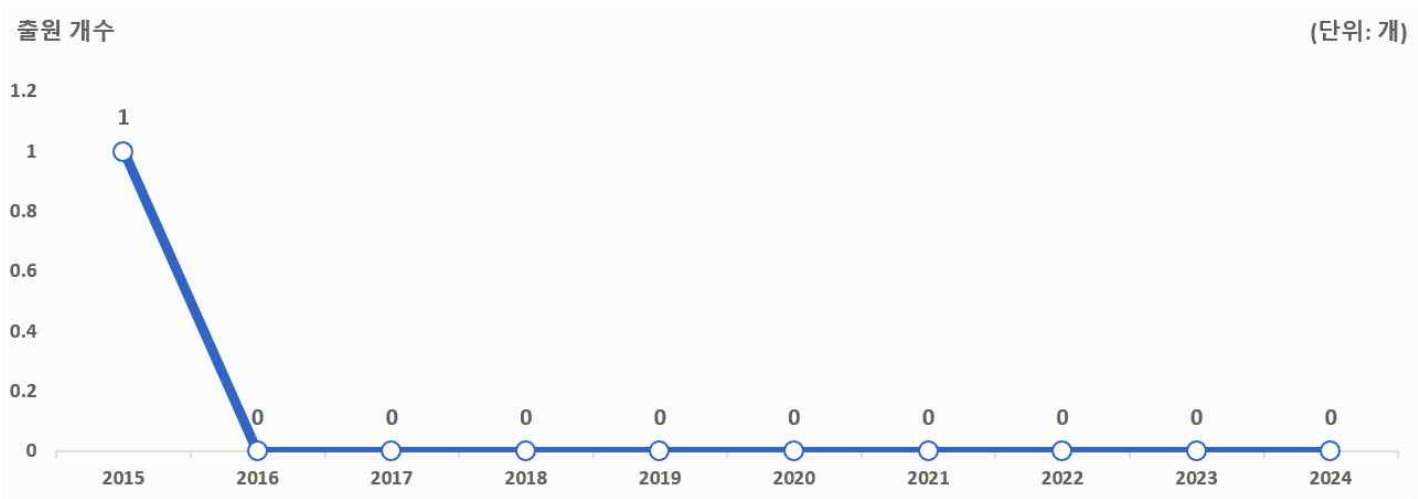
■ 제약·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IT·자동화 솔루션 기술

동사의 IT 계열사 ㈜루텍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기반으로 제약 · 바이오 및 화장품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기반의 효율화 기술을 제공한다. 주요 제공 기술은 의약품 일련번호(UDI) 관리 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WMS), 생산 · 포장공정 자동화 솔루션이며, 일동제약㈜의 항암동 · 세파동 포장라인 자동화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이력관리 2D 바코드 시스템 구축을 수행한 바 있다. 2023년 4월에는 의료기기 제조 기업이던 일동히알테크㈜를 흡수합병하여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미용 의료기기 하드웨어 · 임상관리 기술을 결합한 확장형 기술 역량을 확보하였다.

일동홀딩스(000230)

특허 활동 동향

KIPRIS(2025.11.27.)에 따르면, 동사는 총 135건의 특허를 출원, 25건이 등록되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1건의 특허를 출원, 3건이 등록되었다.



자료: KIPRIS(2025.11.27.)

기술특허 빅데이터 분석(워드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는 평가대상업체의 핵심 기술분야에서 특허 기술 키워드 변동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분석 결과이다.

대상 기술분야의 최근 20년간의 특허 정보를 10년 단위로 비교하여 과거 대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분야 내 키워드 수가 많을수록 키워드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

2005년 ~ 2014년



2015년 ~ 2024년



IV. 재무분석

성장 부문의 확장과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흑자전환 및 재무 안정화

2024년에는 의약품 판매와 IT용역 확대로 매출이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종속기업 제외 영향에도 원가율 및 판관비 개선으로 영업·순이익이 모두 흑자전환되었다. 차입부채 축소와 자본 확충이 이어지며 부채비율·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가 전년 대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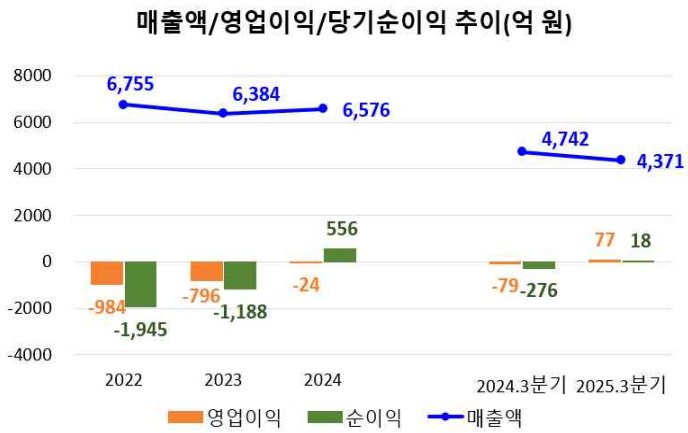
■ 의약품·IT용역 국내 매출 확대로 2024년 성장, 2025년 종속기업 제외 영향으로 감소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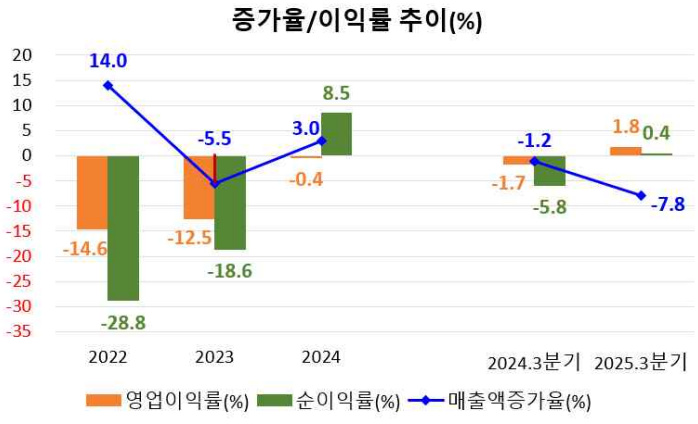
2024년에는 일동제약㈜의 활성비타민, 폐섬유증 치료제, 소화불량 치료제 등 주요 전문의약품의 판매 증가와 더불어, ㈜루텍의 히알루론산나트륨 관련 매출 및 용역수수료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제품·상품 매출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였다. 또한 임대료 매출이 증가하여 기타매출 부진, 판매장려금 증가, 배당수익 감소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일본 매출이 감소했지만 국내 매출 확대와 동남아시아 매출 발생으로 전체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반면 2025년 3분기에는 의약품 전자상거래 및 의료플랫폼 서비스 매출, 광고매출 확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요 전문의약품(소화불량·소화성궤양치료제, 폐섬유증 치료제 등)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및 일동생활건강의 연결 제외 효과가 반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원가율 개선과 영업외수지 회복에 따른 2025년 흑자전환

2024년에는 매출 증가와 함께 원가율이 하락하고 인건비·수수료 등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연구개발비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영업손실 폭이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 더불어 파생금융평가이익, 무형자산처분이익, 종속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 등 대규모 영업외수지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흑자전환되어 순이익률 8.5%를 기록하였다. 2025년 3분기에는 외형이 축소되고 판관비 부담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 하락과 연구개발비 축소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되었다. 이자비용 감소와 파생금융평가손실 축소로 금융수지가 회복된 가운데, 종속기업 투자주식 처분이익이 반영되며 순이익 또한 흑자전환을 기록하였다.

그림 8.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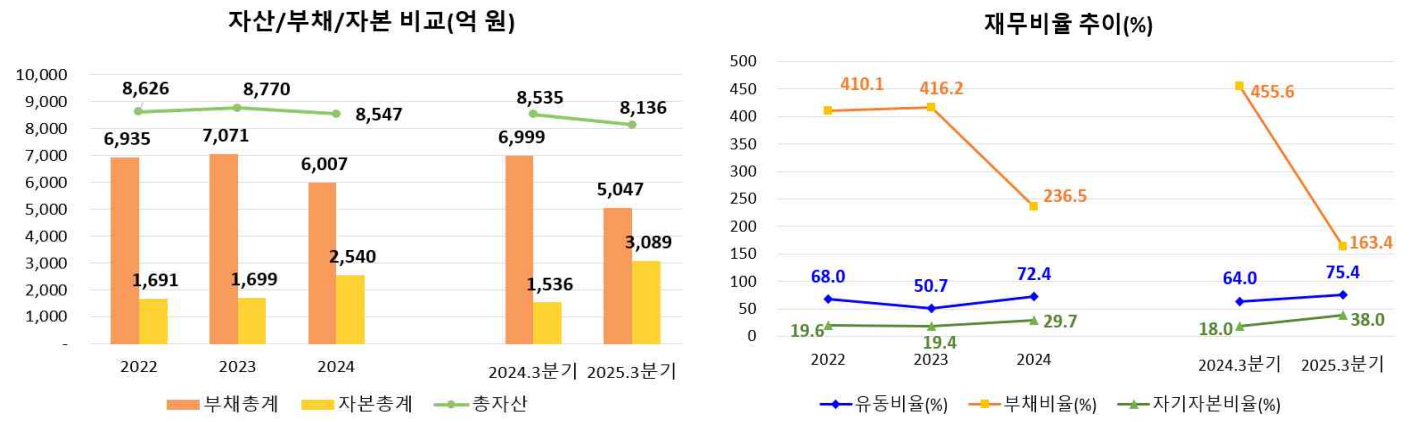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 차입부채 축소와 자본 확충에 따른 재무안정성 개선

2024년에는 일부 단기차입부채와 사채 상환이 진행되고, 기타금융부채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등이 반영되면서 유동부채가 감소하였다. 동시에 기타자본잉여금 확대와 순이익 확보로 누적결손금이 축소되어 자본이 확충되었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36.5%, 유동비율은 72.4%, 자기자본비율은 29.7%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었다.

2025년 3분기에는 장기차입부채 일부 상환과 파생상품부채 제거로 부채 규모가 추가로 축소되었으며, 수익확보 및 비지배지분 증가가 더해져 자본 또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부채비율은 163.4%, 유동비율 75.4%, 자기자본비율 38.0%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은 전년 말 대비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였다.

그림 9.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표 7.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9월	2025년 9월
매출액	6,755	6,384	6,576	4,742	4,371
매출액증가율(%)	14.0	-5.5	3.0	-1.2	-7.8
영업이익	-984	-796	-24	-79	77
영업이익률(%)	-14.6	-12.5	-0.4	-1.7	1.8
순이익	-1,945	-1,188	556	-276	18
순이익률(%)	-28.8	-18.6	8.5	-5.8	0.4
부채총계	6,935	7,071	6,007	6,999	5,047
자본총계	1,691	1,699	2,540	1,536	3,089
총자산	8,626	8,770	8,547	8,535	8,136
유동비율(%)	68.0	50.7	72.4	64.0	75.4
부채비율(%)	410.1	416.2	236.5	455.6	163.4
자기자본비율(%)	19.6	19.4	29.7	18.0	38.0
영업활동현금흐름	-746	-578	173	226	124
투자활동현금흐름	-325	-163	225	49	247
재무활동현금흐름	316	463	-320	-211	-288
기말의현금	990	712	793	777	875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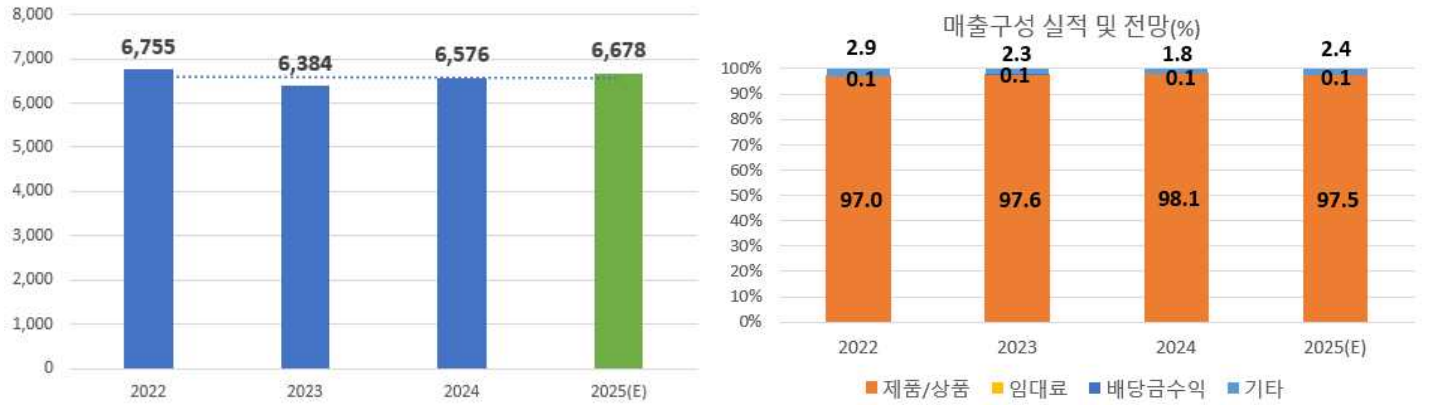
■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온라인 헬스케어 확대·재원 확보를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강화

동사는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 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동제약㈜의 비만치료제 개발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있다. 일동제약㈜이 보유한 저분자 GLP-1 작용제 기반 비만치료제(ID110521156)는 임상 1상에서 우수한 내약성과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규제기관이 요구한 임상 2상 진입을 위한 GLP Tox Study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물질은 18시간 이상 혈중 유효농도를 유지하면서 체내 축적성이 없는 약물 프로파일을 보여 1일 1회 장기간 투약이 가능한 경구용 치료제로, 기존 펩타이드 기반 주사제 대비 약리적 특성, 제조 효율, 경제성,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술수출 및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자회사 새로엠에스㈜는 기존 온라인 의약품몰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운영 효율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일동제약㈜에서 일동홀딩스 자회사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그룹 내 사업 구조 재편과 내부 시너지가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사는 계열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프리 IPO 일환으로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계열사 운영 및 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 동사 매출전망 및 매출구성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표 8. 동사 매출유형별 연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2	2023	2024	2025(E)	2025.1Q	2025.2Q	2025.3Q	2025.4Q(E)
매출액	**6,755**	**6,384**	**6,576**	**6,678**	**1,498**	**1,430**	**1,443**	**2,307**
제품/상품	6,552	6,232	6,447	6,512	1,462	1,387	1,413	2,250
임대료	8	5	7	8	2	1	2	3
배당금수익	2	3	2	2	2	-	-	-
기타	193	144	120	156	32	42	28	54

(*) 연결재무제표 주석 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품 및 상품을 하나로 묶어 판매장려금을 차감

자료: 사업보고서(2024.12.), 분기보고서(2025.09.), 한국기술신용평가(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글로벌 심사 단계 진입과 차세대 파이프라인 확대로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Xocova는 미국 FDA 심사 단계에 본격 진입해 글로벌 기술료·매출 성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구용 GLP-1 작용제 기반 비만치료제도 초기 임상 결과를 확보하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계열 재편 및 자금 조달을 통해 R&D·신사업 확장 여력이 마련되며 중장기 성장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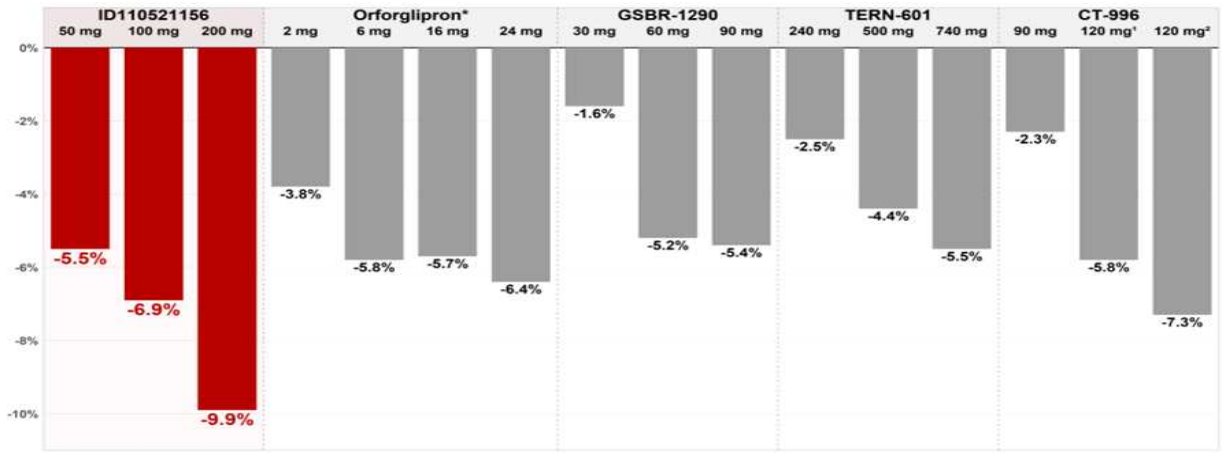
■ Xocova의 미국 FDA 심사 진입으로 글로벌 기술료 수익 창출 가능성 확대

일동그룹의 핵심 기술 자산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Xocova(S-217622)는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심사 단계에 본격 진입하였다. 해당 물질은 2025년 미국 FDA에 노출 후 예방(PEP) 적응증으로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PDUFA(처방약 사용자 수수료법)에 따른 허가 심사 완료 예정일은 2026년 6월 16일로 지정되었다. 이는 그룹의 신약개발 역량이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공식 평가를 받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미국 시장 출시 시 제품 매출뿐 아니라 기술료 및 단계별 마일스톤 수익 창출 가능성도 확대된다. 경쟁 약물이 존재하더라도 선진 시장의 최종 심사 단계에 도달한 점은 그룹 기술력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신뢰 또한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 경구용 저분자 GLP-1 작용제 기반 비만치료제의 초기 임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파이프라인 성장 전망

R&D 전담 손자회사 유노비아㈜ 분리를 계기로 그룹의 차세대 파이프라인 구조가 고도화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경구용 저분자 GLP-1 작용제 기반의 비만·대사질환 치료 후보물질이 있다. 동 물질은 2025년 하반기 국내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주사제 형태인 기존 GLP-1 작용제 시장에서 복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기술적 차별화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이다. 초기 임상 단계에서 확보된 긍정적인 데이터는 유노비아㈜의 연구개발 집중 전략이 성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글로벌 기술수출(License-out)을 통한 조기 수익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그림 11.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GLP-1 작용제) 4주 반복 투여에 따른 체중 감소율



자료: 일동제약㈜ IR 자료(비만/당뇨 신약 ID110521156 임상 1상 탑라인 결과 발표, 2025.09)

일동홀딩스(00023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
	투자의견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5.11.2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일동홀딩스	X	X	X